

전남교육청, 장애학생 온라인 수업 '빈틈없이'

장애유형별 온라인학습방 개설, 방문 지도 등 대책 마련

전남도 교육청이 코로나19로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맞게 될 학교현장에서 교육 소외계층인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지원과 가족지원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실시간 쌍방향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중심 수업 등을 안내하고, 특히 다양한 콘텐츠 활용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을 적극 이용하도록 했다. 이 학습방은 시각, 청각, 지체, 발달 등 장애유형별로 개설돼 있다.

도 교육청은 또 도내 초·중·고 특수교사 33명으로 온라인 학습지원단을 구성, 학습 콘텐츠 제작과 현장 지원을 돕도록 하고 있다.

장애로 원격수업 참여가 어렵거나 온라인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가정과 생업 혹은 조손가정 등의 이유로 도움을 주는 가족이 없는 장애학생들에게는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가정방문 지도에 나서고 있다.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지 않은 학교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교육은 원격수업과 병행해 진행하며 언어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1대 1 맞춤형 교육도 제공한다.

특히, 시·청각·지체장애 유형에 따른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점역 파일, 문자, 수어 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보조공학기가 필요한 경우 전남 도내 3개 거점 특수학교지원센터(목포, 순천, 나주)를 통해

지원이 가능도록 했다. 22개 지원센터가 보유한 보조공학기기, 도서, 교재교구 등을 가정에서 필요 시 대여도 해준다.

한달 이상 장기 휴업과 온라인 개학으로 각 가정 내 학부모들의 피로 누적과 심리적 소진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심리상담도 지원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와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가정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학생의 문제행동 중재를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 인권침해 또는 가정폭력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을 특수학교나 지원센터에서 상시 지원하고 있다.

특수학교 내 원격연수를 위한 환경 구

축, 소외된 가정 스마트기기와 통신비 지원, 전체 특수학교 열화상카메라 설치와 마스크 비축, 학교 소독 등에도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나주이화학교 한 교사는 "대면수업 때도 주의집중이 잘 되지 않아 원격수업을 어떻게 할지 막막했지만 온라인 학습방 개설, 가정방문지도 등 학습지원 방안을 제시해주시 희망이 보인다"며 "이번 기회에 화상수업에 대한 개인역량을 기르고 싶다"고 말했다.

위경중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선생님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경우 한 명 한 명 대면 수업이 절실한 상황인데 안타깝다"며 "이번 상황을 계기로 원격수업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온라인 개학 현실' 컴퓨터 웹캠 품귀

노트북 수리·판매 상승...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속으로 광주지역 초·중·고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는 가운데 컴퓨터로 얼굴을 보며 소통이 가능한 화상카메라(웹캠)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또 노트북과 데스크탑, 태블릿PC 등 수리와 판매량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 서구의 대형 전자상가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고3과 중3을 시작으로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나온 직후 웹캠을 구입하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많아졌다.

웹캠의 가격은 1만원대 부터 30만~40만원 대까지 다양하다. 한 카메라 전문 판매점은 15일에 한대 팔로 팔렸던 웹캠이 발표직후 일주일만에 100여대가 모두 판매됐다.

컴퓨터주변기기 판매점은 10여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루만에 팔렸다.

또 다른 판매점은 사용이 가능한 4만~5만원 제품은 모두 판매됐고 34만 원대 웹캠 4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제품도 구입 예약돼 있었으며 다른 판매점은 22만원 대 제품 1대 남아 있었다.

한 판매점은 "교육청의 구입 문의를 받고 수량 확보에 나섰지만 물량이 없어 공급을 해줄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지만 수입을 할 수 없는 상태.

국내제품도 이달 말에나 신규물량을 확보할 수 있지만 판매점은 대량 구매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판매점 관계자는 "웹캠이 비인기 품목이어서 학교가 전면 개학을 하게 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대량 확보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며 "카메라가 달려있는 노트북이나 태블릿PC를 찾는 고객들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온라인 개학이 현실화 되면서 기존의 노트북 수리를 요청하거나 태블릿PC 구입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중고 노트북 판매점은 "학부모들이 '온라인 수업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며 30~60만원대 제품을 많이 찾고 있다"며 "들여놓기 무섭게 예약 판매도 있다"고 말했다.

컴퓨터 수리점 관계자는 "10여년 된 노트북을 가져와 수리와 업그레이드를 요청하는 고객을 비롯해 해킹 등의 우려로 윈도우 7을 10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도 많다"며 "아이기가 수업을 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하는 부모가 많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초3·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노트북이 1대 밖에 없어 한 아이는 수업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중고로 태블릿PC를 구입했다"며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오는 9일 고3·중3, 16일 고1~2학년·중 1~2학년·초등 4~6학년, 20일 초등 1~3학년이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한다.

광주는 313개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16만5000여명, 전남은 848개교에 18만7000명이 재학 중이다.

/전민규 기자

광주·전남 아동·청소년성범죄

178건 발생·136명 검거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불거진 아동·청소년성범죄가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178건이 발생해 136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인화 국회의원(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지난달 22일 아동성착취범죄 발생건수와 검거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100건이 발생해 75명이 검거됐다.

전남은 78건 발생 61명이 붙잡혔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6년 11건(12명), 2017년 24건(19명), 2018년 34건(20명), 2019년 30건(23명), 지난달 22일 기준 1건(1명)의 아동성범죄가 발생했다.

전남은 2016년 3건(4명), 2017년 25건(18명), 2018년 23건(18명), 2019년 27건(20명)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5년간 아동음란물 제작·유통 등의 아동성착취 범죄는 총 3903건이었으며 경기남부 731건, 서울 617건, 부산 513건, 경남 505건 순이다.

검거 기준으로는 서울 786명, 경기남부 587명, 부산 526명, 인천 342명 순이다.

아동성착취범죄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통·소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들을 매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성착취영상을 발견하고 즉시 삭제나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동성착취범죄'에 포함된다.

/오권철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남지역 대학교 학생들과 '선택! 4·15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고 5일 밝혔다.

"투표 참여하세요" 전남 대학생들 뮤직비디오

전남선관위 '선택! 4·15 뮤직비디오' 제작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투표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남지역 주요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선택! 4·15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전남선관위가 지난 3월 3일부터 동신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를 순회하며 각 학교를 대표하는

새내기 유권자 대학생들과 촬영했다.

'투표소 가는 길' 노래에 맞추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대학생들의 활기차고 역동적인 율동 퍼포먼스가 담겨 있다.

'선택! 4·15 뮤직비디오'는 유튜브(<https://youtu.be/VshXNmFD1y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버스정보시스템(BIS), 시·군 읍내·외 전광

판 등에도 선거일까지 지속적으로 상영해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전남'을 만드는 축제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뮤직비디오를 기획했다"면서 "뮤직비디오를 통해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타르 입국 20대 여성 확진... 광주 27번째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1명 추가 발생해 지역 누적 확진자는 26명에서 27명으로 늘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카타르에서 입국한 A(26·여)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20분에 카타르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A씨는 정부의 입국자 대응지침에 따라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검역당국으로부터 1차 발열검사 등을 마쳤다. 이후 오후 10시40분에 KTX를 타고 다음날 0시20분에 광주 송정역에 도착해 방역당국이 제공한

구급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했다.

4일부터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A씨는 이날 오후 3시에 아버지가 운전하는 자가용을 이용해 광주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

A씨는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이 실시한 검체 검사 결과 이날 오후 10시30분에 양성 확진 판정을 받고 곧바로 빛고을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시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A씨의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한편 동거인 등을 상대로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서선택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